

“불교역사 알리고 전법의 場으로”

'97 문화유산의 해

사찰박물관 실태와 방향

사찰박물관은 성보를 전시·보관하고 있으며, 불교역사와 부처님 사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박물관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몇 안되는 사찰박물관의 실태는 어떠한가. 새로 건립되는 사찰박물관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이에 대한 방안을 짚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현재 사찰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문체부가 인가(관람료 징수 박물관)한 통도사, 직지사를 비롯해 유물관 형태의 대흥사, 해인사, 표충사, 송광사, 월정사, 기림사 등 모두 8곳. 또 올해와 내년중 일제히 개관할 박물관은 마곡사·수덕사·금산사·선운사·용주사·선암사·은혜사·옥천사·흥국사 등 9곳으로, 사찰박물관은 모두 17개로 늘어 나게 된다. 해인사·월정사·대흥사는 기존 유물관이 있으나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한다.

87년 문체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80평

보를 전시해 놓았다. 직지사는 사찰박물관으로서의 유일하게 본·말사 성보 1천여점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 박물관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새 박물관을 마련중인 송광사는 150평 규모의 2층 목조건물을 계획으로 지난해 착공, 올해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동여림(국보 제176호) 등 3백여점의 성보를 전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의 박물관들은 사찰박물관으로서의 기능 및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새로 건립될 박물관을 포함, 다각적인 개선방향이 모색돼야

<현 성보박물관 및 유물관>

구분	개관	규모	소장 유물	전문가 여부	비고	
박물관	통도사	87년	1262평(신)	문수보살최상승무생계경(보물738호) 등 6백여점	학예연구사 1명	98년 4월 새박물관 개관 예정
	직지사	97년	100평	금동유각사리함 등 6백여점	"	올 3월 개관
유물관	송광사	62년	150평(신)	목조삼존불갑(보물42호) 등 3백여점	없음	새박물관 연내 개관 예정
	해인사	67년	67평	목조화랑조사상 등 2백여점	"	성보박물관 새로 건립중
	월정사	90년	20평	육수관음상 등 2백여점	"	"
	대흥사	79년	60평	탄산사동종(보물88호) 등 2백여점	"	"
	표충사	90년	90평	청동함은환원(국보175호) 등 3백50여점	"	대부분 사명대사 유물
	기림사	91년	70평	건립보살좌상(보물415호) 등 7백여점	"	보물관·성보관 2개동으로 구성

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전문인력의 배치다. 현재 학예연구관을 두고 있는 박물관은 통도사와 직지사 두 곳 뿐이며, 대부분 박물관이 인력부족으로 운영에 필수적인 기초자료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박물관의 다기능화이다. 박물관 건물을 수련관, 세미나실 등을 만들어

<건립예정 성보박물관>

사찰	건립규모	기공일지	완공예정
마곡사	108평	97. 3월	올해 말
*월정사	200평	96.12월	"
수덕사	200평	96.12월	"
금산사	120평	97. 3월	"
*대흥사	150평	96.12월	"
선운사	250평	97. 3월	"
*해인사	500평	97. 3월	"
용주사	100평	97. 1월	"
은혜사	200평	96.10월	"
옥천사	180평	96.12월	"
선암사	200평	97. 5월	98년
흥국사	미정	미정	미정

*표는 기존 유물관을 박물관으로 확장 건립.

다. 현재 대부분 사찰박물관이 운영난에 허덕이다보니 전문 연구관을 고사하고 관리인조차 제대로 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원마련은 불교의 미래를 위해 해당 박물관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전문가 및 박물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한영우 기자

통도·직지사등 현재 8곳 운영...올 9곳 완공 유물보관보다 전문성 살려 교육기능 보완

규모의 박물관 문을 연 통도사는 94년부터 연면적 1262평의 신규 박물관을 건립, '불화(佛畵)전문박물관'으로 내년 4월 개관할 예정이다. 60여명 규모의 대흥사 사찰대사 유물관이나, 중흥조인 회랑대사와 사명대사의 유물을 간직한 해인사 유물관, 대부분 사명대사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표충사 유물관도 특화된 전문유물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 사경·전적류와 탱화 등을 구분해 전시하고 있는 기림사 박물관 역시 사찰 특성에 맞는 전문박물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96년 문체부로부터 전문 박물관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3월 개관하는 직지사 박물관은 1백여평규모에 160여점의 성

보로 전시되고 있다. 첫째, 홍보 및 전시공간으로서의 활용이다. 대부분의 박물관이 유물전시 및 보관에만 치중할 뿐 관람객들로 하여금 사찰박물관의 특수성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불화와 불상을 전시공간 중앙에 배치해 예배공간을 겸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는 통도사 박물관은 눈여겨 볼 만하다.

둘째, 박물관의 시정각 포교형질이다. 유물도록이나 모니터를 이용, 단순히 전시의 형태를 벗어난 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배경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교 및 사회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실현활동·학술대회 개최 등 일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3월 착공하는 해인사 성보박물관의 경우 이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다섯째, 화재방지나 온·습도 조절 등 박물관이 지녀야 할 기본조건 완비다. 화재방지에는 콘크리트건물이 좋으나 온·습도 조절에는 목조건물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찰과 박물관을 조화롭게 연계시켜 사찰 전체가 박물관임을 인식시켜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사찰박물관 건립 이렇게...

주변환경 조화 최우선 과제

법허스님(통도사 박물관장)
사찰박물관은 그 자체가 예배대신 동시에 예배공간이 돼야 한다. 전시유물을 보여주는 단순한 기능에 그쳐서는 안된다. 공간설계 및 박물관과 관련한 충분한 홍보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비록 내부공간의 현대적 설비가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사찰 주변공간과의 조화를 모색한 건립이 바람직하다.

스님들 문화재 이해 높여야

강우방(국립경주박물관장)
사찰박물관이라 하더라도 온·습도 등 박물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을 완벽히 갖추어야 한다. 사찰유물은 단편의 유물이 크므로 보존상의 문제점 고려도 필수적이다. 사찰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은 무엇보다도 스님들의 사찰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하는 문제다.

불교중앙박물관 '당면과제'

문명대(동국대 불교미술문화연구소장)
수장고, 전시실, 보존처리 등 박물관 기본설비에 충실해야 한다. 여기에 포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시방법이 동원돼야 하며, 이를 기획·관리할 전문인력 및 전시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교중앙박물관 건립이 우선 이뤄져야 하며, 동국대 박물관과 연계한 건립도 고려할만 하다.

사찰특성 따른 전문화 필요

이기선(불교조형연구소장)
김치박물관, 농업박물관 등 근래들어 박물관은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다. 사찰박물관의 경우도 그 자체가 전문화된 것이다. 그러나 통도사 박물관이 불화(佛畵)전문박물관을 표방했듯이 사찰박물관도 해당 사찰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수적인 팽창으로 인한 운영상의 부실이 염려스럽다.

나의 수행일기

김동환 <이리원사선교원원장(통도사)>



1950년대 중반 무렵 나는 세계기독교 통일선명협회에 빠져 전북지역의 통일교의 확산 전도를 위해 철야기도를 반복했었다.

그러다가 차츰 그 열성적인 통일교와의 인연을 끊게 되었다. 그로부터 수년동안에 걸쳐 종교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을 갖고 원불교를 비롯해 개신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많은 종교를 경험하였다. 그러던중 나의 어머니께서 별세를 하셨다. 어머니가 생전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하시던 모습을 새삼 깨달았던 나는 위례를 연곡사에 봉안했다.

연곡사에서 사십구재를 모시는 동안 나는 스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 불교에 대한 호기심으로 각종 불교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또 당시 이리시에 불교교양대학이 설립되어 집사람과 함께 불교교양대학에서 1년간 교리공부도 했다. 교양대학을

토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교교양대학에 입학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내가 예전에 그랬듯이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불교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3년전부터 대불청회원과 불교홍보를 위한 권선문도 만들어 이리 인근지역 관내 사찰을 돌며 직접 배포하고 지역불자와 스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활동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지역불교계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하

“경험토대 청년들에 교리공부 권유”

여러 종교서 느낀 회의 불법귀의하니 없어서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부처님은 이미 이 천여년전에 벌써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천문학을 꿰뚫어 보셨던 대 과학자이셨으며 의학을 비롯한 농학과 이학 수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통달하셨다는 것도 알게 됐다. 모든 사물을 깊이 통찰해서서 무명의 증상에 자비광명을 비치게 해주셨던 것이다.



서 청년불자포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에도 열심히 청년불자회원 배가를 위한 포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부터는 원광대학교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법회도 하고 그들의 수행활동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 있다. 대학생불교학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서 나는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후에 나는 다시 법사과정을 공부했다. 법사과정 공부를 하며 미천하고 부족하기 이를데 없는 나 자신이란 낙후한 전북지역의 불교발전을 위해 그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겪더라도 후배들의 양성과 포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나는 그러한 책무를 느끼며 여건이 허락되는 한 청년불자들과 함께 수행활동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생불교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 등을 찾아 다녔다. 청년불자들을 만나면서 올바른 수행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불교교리에 대한 이론적

생활을 지도하다보니 대학시절에는 수행활동을 열심히 했던 청년법우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점점 수행활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을 다독거리고 법회를 이끌어 내야 할때도 많았다.

그렇다면 최고학부를 나온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생활에 응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신해행중(新解行中)의 가르침 그대로 먼저 불법을 믿고, 그 가르침을 충실히 이해하고 난 뒤에는 마땅히 가르침에 의지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실천행을 닦아야 하는 것이 불자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나의 재기부치는 청년불자들과 함께 전북지역 불교포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포교현장의 전문법사양성(3년 과정)

97학년도 동산불교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불교전문 연구원 개설 취지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부처님 가르침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회중생, 보살도를 증생속에 실천하는 사명감 있는 전문법사, 포교사를 양성코자 3년과정의 동산불교 전문연구원을 개설함.

2. 교과목 및 교수

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교수
경전과정 (매주월요일)	1학기 화엄경입문개론 2학기 화엄경 1	1학기 금강경 2학기 문수론	1학기 화엄경 1 2학기 불교미술	· 문명대(동국대 불교미술문화연구소장) · 문명대(동국대 불교미술문화연구소장) · 문명대(동국대 불교미술문화연구소장)
종교과정 (매주화요일)	1학기 비교종교·영교 2학기 이원경 1	1학기 법화경 1 2학기 법화경 1	1학기 화엄경 1 2학기 포교방법론	· 문명대(동국대 불교미술문화연구소장) · 문명대(동국대 불교미술문화연구소장) · 문명대(동국대 불교미술문화연구소장)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개강일시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신규반(30명)	①영교대학·신규·이수자 ②불교교양대학(학)·이수자 ③과거학력 이수 증명서 ④부고사 취득서	①입학원서 1통 ②주요경력서 1통 ③인정학력서 3통 ④영교대학·이수증명서 1통 ⑤서지교사서 1통	97년 2월 1일 ~ 3월 1일(토) (서류전형)	97년 3월 3일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9시 (만영구 법당)	종신반은 지원 거주지나 출석 수에 따라 면제된 지원가능

4. 개강일시

1997년 3월3일(월), 4일(화) 오후 7시

5. 입학금

일일만원

6. 졸업자격

경전과정(6과목 이수), 응용반(5과목 이수) 합하여 11과목 이상 이수자에 연구원 졸업장(전문법사)을 수여함.

7.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서울 종로구 경치동 13)
문의전화 : (02)732-1206~8, 722-0408/Fax: 732-1207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원장 무진장

1997년도 도시생활 포교사를 위한(1년 과정)

동산불교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개설 취지

종교의 생명은 의식에 있습니다. 불교의식처럼 다양하면서도 장엄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구성된 불교의식은 중중·엄숙하기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제 한글화된 불교의식의 숙달로 생활 속에서, 특히 경조사에서 불교의식 집전은 불교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산불교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글불교의식교육 3기생을 모집합니다.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7년 3월 8일 (토) 3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한글불교의식 I(상반기)	한글불교의식 II(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심·저녁으로 해오하는 예경의식 ●시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현공의식 ●경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송주 장엄염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말·동·생명의식과 결혼의식 ●장례의식(1) 일반의식 ●장례의식(2) 일종·매장·화장의식 ●세공의식 및 영혼전도를 위한 천도의식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방명록합산서 3장	97년 2월 1일(토) ~ 3월 7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3:00~4:30(동산법당) (만영구 법당)

5. 입학금

●일일만원

6. 원서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732-1206~8/FAX : 732-1207)

7.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자격 수여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110-170)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3번지